



결사 투명해야 불교가치 구현

미산 스님, 연기·중도관·동체대비 강조하며 현대사회 병폐해소 방안 제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3월 대토론회가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5대 결사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에 대해 모색해 보는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연기'와 '동체대비'를 강조했다.

“불교의 핵심가치는 연기·중도관, 동체대비행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5대 결사로 현대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조계종이 추진하는 5대 결사가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큰 틀이며 해답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

△수행결사= 5대 결사 성패 결정 미산 스님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문명은 사용하기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기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수행결사가 나머지 4가지 결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결사= 한반도 평화, 종교 권력화 극복 전안함 침묵과 연평도 포격으로 아직도 남북 간의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산 스님은 평화 결사에 불교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어려운 상황일수록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단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종교 평화를 위해서도 종교 다원주의 인정과 대화의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결사= 불교의 사회적 책무 미산 스님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를 맑고 조화롭게 하고, 이를 통해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의 감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를 위해 ‘맑고 아름답게’, ‘맑고 조화롭게’, ‘맑고 향기롭게’, ‘맑고 담백하게’, ‘맑고 활기차게’, ‘맑고 훈훈하게’의 육근 청정운동을 제안했다. 스님은 또 이밖에도 전통의 창의적인 재해석과 사찰건축과 법당 장엄문화의 현대적 창조, 불교음악 발전, 사찰음식 확산, 절과 같은 몸 수행운동 전개 등 구체적인 실천지침이 문화 결사의 범주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눔 결사= 바라밀 수행의 첫 덕목 미산 스님은 “동체대비의 중도행이야말로 불교가 앞장서서 이 시대에 구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다. 나눔이란 대승보살의 바라밀 수행의 첫 덕목인 보시바라밀로 베풀고 나눔으로 자신의 욕심을 비워

내고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내어 보살피는 세심함이 필요하고 법적인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아동이나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교 국제구호단체 활성화로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종단 전체 스님들에 대한 의료 등 종합복지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디지털 네트워크 결국 '연기' 미산 스님은 이날 토론회에서 불교적 가치가 SNS 등 디지털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 디지털 문명 사회의 네트워크가 결국 '연기'라는 주장이다.

스님은 “이런 시대에 네트워크의 관점을 활용하면 일반시민들에게 불교의 연기법을 이해시킬 수 있다. 스마트한 기계보다 더 스마트한 지혜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연기적 관계 속에서 우주적으로 통찰해내는 지혜의 시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산 스님은 이기적 욕망을 내려놓고 동체대비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야말로 연기법 수행의 최적의 장소이며 불교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님은 5대 결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종단의 무리한 행정적 동원에 앞서 심도 깊은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과 생명결사는 시민단체나 이웃 종교와의 유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미산 스님은 “진정성, 구체성, 지속성이 확보돼야 불교적 가치의 현대사회 실현을 위한 5대 결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성과 쇄신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과연 누구를 자성하고 무엇을 쇄신해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글=박기범·천진영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참된 수행관 둘러싸고 공방 이어져

수행의 사회적회향 강조... 지 환 스님, 종합적 이해 당부

이날 토론회는 5대 결사 중 상당부분을 수행 결사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 모두 수행관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 펼쳤고, 특히 재가불자, 흥선 스님, 도법 스님과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 환 스님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수행결사에 관한 토론 중 지 환 스님은 “불교는 이론이 아니다. 철학적으로 아무리 이해해도 소용없다.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유혹을 떨치고 눈을 뜨면 행복할 수 있다. 삶의 본 모습을 일단 제대로 알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서 교수는 “1987년 6월 시민들의 집회를 보고 ‘국민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큰스님의 발언이 방송된 일이 있다.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이었고, 그 때 이미 수행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흥선 스님도 “선원이 나[我]를 쌓아가고 있다. 자신의 위치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건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수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미산 스님은 “너무 선적인 말씀이다. 나는 사성제가 실제 삶에서 얼마나 실천이 되는지 의문이다. 나는 연기법을 수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희택 원장도 재가불자들에게는 깨달음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불교가 개인의 행복에 더 관심을 갖고, 대중의 언어로 풀어 줄 것을 주문했다.

박광서 교수는 “불교가 마치 스님과 학자들만 연구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문제다. 사회회향, 일상 하나하나를 수행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수행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불가능해지면 불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미산 스님도 “정진의 이유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자제가 선행에 필요하다”며 선방 스님들의 수행관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지 환 스님은 “수행에 관한 여러 지적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산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다. 오케스트라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화합을 이룰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수행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의 지적들은 한국의 선원들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행 결사에 대한 토론이 뜨거워지면서 선방에만 한정된 현재 수행자들의 모습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박광서 교수는 “1987년 6월 시민들의 집회를 보고 ‘국민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큰스님의 발언이 방송된 일이 있다.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이었고, 그 때 이미 수행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흥선 스님도 “선원이 나[我]를 쌓아가고 있다. 자신의 위치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건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수행이다”라고 말했다. 박광서 교수는 “1987년 6월 시민들의 집회를 보고 ‘국민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큰스님의 발언이 방송된 일이 있다.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이었고, 그 때 이미 수행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수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지 환 스님은 다소 격양된 어조로 “연구만 하는 교수를 만날 수 없듯이 수행만 하는 선승을 육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들도 불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현장에서 100% 진실한 언어를 쓰는 사람 누가 있느냐. 어느 누가 부처님과 같은 팔정도를 살고 있느냐. 선방의 낮은 단계 수행자와 사회에서 높은 식견을 갖춘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전문 수행자들이 질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글=박기범·천진영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는 박경준 동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 환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 박광서 서강대 교수,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미산 스님은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병폐를 정보 문명의 위기, 생태환경 오염, 남북 갈등과 종교의 권력화, 혼탁해진 사회문화,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로 제시하고 이 문제들이 5대 결사의 각 영역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산 스님은 “이런 노력과 현재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시대는 불교의 핵심가치인 연기법을 이해하고, 동체대비의 중도적 실천행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생명결사= 불교적 입장 확립 중요 지구촌은 자연환경의 훼손과 오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 구제역, 일본 대지진 등 생태 환경 파괴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요

【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 】

승왕청 임명식 및 스리랑카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총정
석인왕 큰스님

스리랑카 시암종 중정
아시리기 큰스님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큰스님

태국 제 카타판노
큰스님

스리랑카 아미라푸라
쇼바 큰스님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 세계불교승왕청

총무원 대약사사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삼71번지
 TEL: 043) 731-2261 FAX: 043) 731-6453 회주: 043) 731-6454
 본산 약사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 2동 산 7번지
 TEL: 031) 734-3205 FAX: 043) 735-3374 회주: 031) 747-8303

세계평화 · 남북통일기원 · 국가발전 · 가정만복기원

세계 고승과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석인왕 큰스님께서 증명하시고 전개함으로써 수승한 인연을 맺고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중흥을 위한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 및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본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에서는 해동신라의 원효 성사가 경찬하신 묘법의 현의와 고려 재판법사가 전하신 법화의 종지를 계승하여 의천대각국사께서 수립하신 천태종을 정통 종문을 계승하여 현재에 이르러 인왕 큰스님을 중정으로 전통적인 계법을 이어받았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여러 중도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1부 (오전 11시)

- 승왕청 임명식 및 스리랑카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

▣ 2부 (오후 13:30시)

-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

1. 일시 : 불기 2555년 음 3월 7일 (양 4월 9일) 토요일
2. 장소 : 총본산 금강 대약사사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앞산)
3. 문의 : 총무원 금강대약사사 : TEL 043)731_2261
 본산 성남 약사사 : TEL 031)734_3205

※사정상 거머비는 없습니다.